제 4 장 서양 근대 철학의 시작

1.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구분하면 '합리적(rational)'이란 말과 '경험적(empirical)'이란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1) 분석명제는 주어만 분석하면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다.

◇ 예를 들어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명제나 '총각은 남자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보자. 이 두 명제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주어, 즉 '총각'이란 개념만 분석해도 자명하게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된다.
→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총각'이란 말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총각'이란 말의 의미는 경험을 통해서만, 즉 언어를 배움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종합명제는 주어를 분석한다고 해도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이다.

◇ 예를 '강신주는 철학을 좋아한다.'라는 명제를 생각해보자.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신주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만 한다. 이로부터 '경험적이다'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된다.

2. 근대철학은 데카르트(Descartes)의 의심하는 자아, 즉 코기토(cogito)로부터 시작된다.

1) 데카르트(1596-1650)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었다.

◇ 하나는 「방법서설」에서 드러나는 '실존적 데카르트'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에 등장하는 '철학적 데카르트'이다.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불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 것!
◇ 「방법서설」에 등장하는 '실존적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낯선 곳, 당시 가장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에 머물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프랑스에서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이 프랑스에서만 통용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자신이 알고 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프랑스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다시 말해 특수한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바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회의하는 데카르트'가 실존하게 된다.

> ◇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관습이라는 선례라는 점, 더욱이 그럼에도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진리에 대해서는 그 발견자가 한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진실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진리성이 유효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방법서설(Discours de la methode)」

2)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사유하는 주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주체였다.

◇ 「성찰」에 등장하는 '철학적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에 통용되는 진리를 내면적으로 성찰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그는 먼저 감각 경험을 진리의 근거로 의심한다. 하긴 감각 경험처럼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것은 없다. 이 점에서 그를 합리주의의 선두주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감각과 이성의 대립, 그리고 이성의 우월에 대한 생각은 이미 플라톤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었다.

◇ '철학적 데카르트'는 계속 회의를 하다가 수학적 진리마저도 회의한다. '1+1 은 2 이다'라는 참인 분석적 명제마저도 어쩌면 신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믿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철학적 데카르트'는 신마저도 회의하고 있다. 이때 기묘한 반전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 내가 회의하는 순간, 회의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이 확실하고 자명한 진리이다. 이것이 유명한 "Cogito, ergo Sum"이라는 명제가 가진 의미이다. 마침내 데카르트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은 것이다. 결국 코기토는 근본적으로 '사유'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의심·회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실존적 데카르트'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 합리론(rationalism)과 경험론(empiricism)이란 도식은 근대 초기에 속한 철학자들을 오독하게 할 수 있다.

1)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의 신의 존재론과 마주침의 윤리학
◇ 합리론자 스피노자: 신은 무한자인가 유한자인가? 만약 무한자라면, 신은 세계 자체일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스피노자의 유명한 도식, 즉 <natura naturans(능산적 자연)=natura naturata(소산적 자연)>이 성립하게 된다. 이 도식으로부터 세계를 구성하는 개체들도 능산적 자연, 즉 일종의 생산성을 갖는 것으로 사유된다. 스피노자는 그것을 코나투스(conatus)라고 부른다. 결국 코나투스는 개체에 내재하는 능산적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 경험론자 스피노자: 마주침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이 발생한다.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마주침은 기쁨을, 그렇지 않고 코나투스가 감소되는 마주침은 슬픔을 낳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주침은 합리적이지 않고, 오직 경험적으로만 확인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쁨과 슬픔도 오직 마주침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만 확인될 수 있다.

> ◇ 우리가 우리의 신체와 적합하지 않은 외부 신체를 만날 때(즉 그 신체의 관계가 우리 신체의 관계와 결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마치 그 신체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에 대립하여 그것을 삭제하고 고정시키듯이 진행된다. 이때 우리의 행위능력은 감소하거나 방해받고, 이에 상응하는 정념들은 '슬픔'에 속한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의 본성에 적합한 신체를 만날 때, 즉 그 관계가 우리의 관계와 결합할 때, 그 신체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첨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변용시키는 정념은 '기쁨'에 속하며, 우리의 행위능력은 증가되고 도움을 얻게 된다. 「스피노자: 실천철학(Spinoza: Philosophie practique)」

2)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1646-1716)의 모나드 이론과 미세지각 이론

◇ 합리론자 라이프니츠: 모나드(monad) 이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분석명제로 파악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케사르'라는 모나드는 '루비콘강을 건넌다'라는 속성을 잠재적으로[virtually]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속성이 현실적으로[actually] 실현되어 실제로 '케사르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역으로 '루비콘강'이라는 모나드는 '케사르에 의해 건너졌다'라는 속성을 잠재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속성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실제로 '루비콘강은 케사르에 의해 건너졌다'는 것이다.
◇ 경험론자 라이프니츠: 미세지각(minute perception) 이론은 우리의 일상적 지각은 미세한 지각들의 종합의 결과로 도래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는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를 모두 잠재적인 층위에서 듣고서 종합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은 잠재적인 층위의 미세지각들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일상적인 거대 지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3)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의 '인간의 지각'과 '신의 지각'

◇ 경험론자 버클리: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Esse est percipi)”라는 버클리의 유명한 주장은 분명 경험론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의 존재 여부를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합리론자 버클리: 버클리에 따르면 ‘지금 내가 지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 원리적으로 그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의실에 들어오기 이전 건물 바깥에서 내가 지각했던 자동차는 그 순간 존재했었다. 그러나 강의실에 들어와 이제 지각할 수 없게 된 그 자동차는 지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그것을 지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클리는 지금 우리가 지각하지 못한 자동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절대자인 신이 그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신을 믿으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은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 신을 타자로 바꾼다면, 우리는 타자가 자신의 조각난 세계, 혹은 불안한 세계를 메워 주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물론 우리는 신을 믿듯이 타자를 믿어야 하지만 말이다.

4) 흄(David Hume, 1711-1776)의 관계항(relata)과 관계(relation)의 논리

◇ 경험론자 흄: 흄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관계항들’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겨울에 날씨가 흐려진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눈이 오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한다.
◇ 합리론자 흄: 흐린 날씨와 눈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은 날씨가 흐려졌기 때문에 눈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혹은 추론하거나, 아니면 상상하게 된다. 흄에 따르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이 가진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이지, 두 사건 자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결국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흄에게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구성하는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흄이 결국 이성적인 것이나 법칙적인 것, 즉 진리는 모두 우리의 정신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바로 여기에 그의 합리론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합리론은 우리의 정신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 흄에게 남겨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정당한 ‘관계’를 관계항들에 부여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칸트의 비판철학이 문제 삼았던 것이다.